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요한복음 14: 1~6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박국서 2:4 절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면 좋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때론 자기 자신을 믿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하였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채우려는 믿음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과업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에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 13:21)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따를 수 없다 하시니 베드로는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지 계속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로 인해 제자들은 깊은 상심에 빠진다.

그 때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니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믿고 쫓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 인가요? 너희 욕심과 정욕과 명예와 부를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완전한 믿음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걱정과 근심에 쌓여 무엇으로 내 인생을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 욥, 그는 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내, 자녀, 물질, 명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 23:8-10)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길을 누가 아신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예수님은 아셨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인생의 길은 어디 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물질의 길 위에서 있을 것 입니다. 자녀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자녀의 길 위에서 있을 것 이겠지요 성공에 명예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성공과 명예가 있는 길 위에서 있을 것 입니다. 누구나 가려는 길을 가고 있겠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보여주는 지도에서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내 위치가 내 길이 보이던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꺼리는 길, 내가 가는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라고 곧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 단어에서 나왔는데 에메트 글자에 담긴 의미가 깊습니다. 에메트의 ‘에’ 글자가 히브리어의 첫 글자이고 ‘메’ 히브리어의 중간 글자이고 ‘트’가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입니다. 에메트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곧 알파와 오메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지요.

세상의 진리가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가다 참 진리를 만나 인생 역전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율법을 진리라 믿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역할에 앞장 서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진리가 진짜라 생각하여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변화를 받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자신의 모든 거짓 진리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 참 진리를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 진리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해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 입니다

요한 3 서 1:3-4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에 대해 증언 한다는 것 곧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32 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리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 거하여 모든 근심 걱정 울분 살기 분냄 혈기를 잠재우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어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가져다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 자유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인 아담도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두려워하며 동산 수풀 사에에 숨고 맙니다. 죽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아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직접 손수 가죽옷을 입히시며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에서 제한된 육체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육체로 죽어 이 땅에 묻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놀라운 방법을 이미 계획해 놓셨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교회를 친구 따라 놀러 다녔는데 친구가 수련회 가자 해서 따라 갔다가 밥 먹기 위해 외운 구절 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 절입니다. 한번 같이 외워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는 노래로 외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요한복음 3:16 절 바로 전 14-15 절이 내용을 하시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뱀처럼 장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자신이 죽어 생명을 살리는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봐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은 아시나요?

부모라면 한번쯤 자녀들 때문에 가슴 철렁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 되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의 시간

1.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3 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14:6)

2.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 인가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 곧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연약한 점을 서로 돌아보며 재결단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로 인해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VIP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